

한 학기 한 권 읽기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작성 김영선 선생님(삼평중학교 교사)

오늘의 청소년 문학 34

이호영 장편소설



주제어 #역사소설 #미용 #단발령 #화신미용실 #오엽주 #성장소설

분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이 지도안은 다른출판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darun_pub)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수업 주제: 읽기 전 활동	
학번:	이름:

1.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15년 전 ‘두발 규제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때는 여학생들이 긴 머리를 할 수 없었고, 단발머리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단발머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까요?



◀ 2005년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모습.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990년대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 크게 분출됐다. 2000년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연대해 꾸린 단체인 ‘위드’는 ‘노컷운동’이라는 두발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 서명운동에는 10만 명 넘게 참여했고 학생인권 문제를 표면화하는 계기가 됐다.

- <연합뉴스>, 2018.9.27. 기사 중에서

1920년대에 여성들이 스스로 단발을 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단발이 유행함. 남성들이 단발령(1895년)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른 것에 비해 여성들의 단발은 다소 늦었고, 자발적이었음.

2. 단발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로 했던 머리 형태는 다음과 같은 ‘쪽머리’였습니다. 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의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출처: <조선일보>, 2008.

쪽머리에 비듬과 때가 많이 끼고, 비듬이 눈처럼 흩날림.

3. 우리나라 남성들은 언제부터 상투를 없애고, 머리를 짧게 잘랐을까요?

단발령(斷髮令)은 조선 후기에 두 차례 공포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다. 1895년과 1900년 두 차례 행해졌으나 보통 단발령이라 하면 큰 반발이 있었던 1895년 1차 단발령을 의미한다. 일단 고종과 태자(순종), 그리고 내각의 신하들 중 반 정도가 강제로 상투를 잘랐다. 그 후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 준다고 선전하며 전 국민에게 머리를 깎을 것을 요구했다.

4. 두발 규제 반대 시위 등을 통해 보면 머리 모양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머리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예 나에게 머리 모양은 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빛깔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머리 모양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 나에게 머리 모양은 ()이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 나에게 머리 모양은 ()이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 나에게 머리 모양은 ()이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 나에게 머리 모양은 ()이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2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수업 주제: 독서일지 작성하며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쪽수	쪽 ~ 쪽
<p style="text-align: center;">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p>			
<p style="text-align: center;">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p>			
<p style="text-align: center;">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p>			

3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수업 주제: 독서일지 작성하며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쪽수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4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수업 주제: 독서일지 작성하며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쪽수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5~8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수업 주제: 읽는 중 활동(질문으로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세부 질문>

1. 인덕이는 긴 머리를 왜 자르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약값으로 쓰려고

2. 잡화점 주인이 인덕이의 머릿값으로 처음에 3전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 10전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여인이 자신이 머리카락을 산다고 잡화점 주인과 흥정하여 가격을 올려 줌.

3. 인덕이의 눈에 들어온 오엽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그려 보고 설명해 봅시다.

키가 인덕이보다 머리 하나 반은 더 커 보이고, 뺨쪽구두, 곱슬머리, 모자, 검은 안경 등 예사롭지 않음.

4. 인덕이가 머리를 자르고 오자 할머니가 화를 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단발을 강요한 이유는 조선 대대로 이어 온 조선인의 뉘, 조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짓밟으려는 수작이기 때문. 조선인으로서의 정신만큼은 팔 수 없으며, 그 정신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

5. 인덕이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음. 돈이 없어서 할머니 약도 제대로 못 쓰고, 학교도 못 다니는 상황.

6. 오엽주가 할머니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엽주는 오래전에 짓먹이 인덕이를 업고 놀아 준 노비였음. 오엽주는 인덕이 할아버지가 내준 재물을 가지고 포목점을 한 부모 덕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 인덕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여겨 고마워서 찾아옴.

7. 인덕이가 시장에서 종로로 옮겨 다식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식을 살만한 사람을 찾아간 것. 다방 앞에서 서양식 접시에 담아서 팔아서, 다방은 문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다방 주인이 사감.

8. 인덕이가 미용실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후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한 약품, 숯불에 인두까지 다루다 보니 손에 생긴 생채기가 아물 틈이 없음, 손님이 하인 부리듯 대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음. 두어 달 기술을 배워서 바로 미용사가 되고, 금방 이름을 알리고 결국 부자가 되는 결말만 상상했는데 실상은 어렵고 힘든 일투성이임.

9. 인덕이의 할아버지, 김영직 대감이 상투를 자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의 강압이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 강압을 받아들인 것. 이후 인덕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고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함.

10. 오엽주가 단발머리를 자르는 과정을 노란 공책에 적으며 인덕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 머리를 자르는 과정은 꼭 집을 짓는 것과 같음. 머리를 자르는 일이 매우 섬세하고 계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노란 공책에 세세히 적음.
- 오엽주가 머리를 해주고 나면 손님들이 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손님에게 웃음을 주는 미용사가 되겠다고 결심.

11. 인덕이가 러시아 대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대사 부인이 미용 잡지를 주며 인덕이에게 해준 말은 무엇인가요?

공부 많이 해서 지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용사가 되라고 말함.

12. 서양 잡지에 나온 서양 여인들이 제각기 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인덕이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조선 여성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함. 인덕이는 조선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다채롭게 만들어 보고 싶음.

13. 오엽주는 견습생 3명이 라이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견습생들에게는 각자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 그걸 발견하고 협력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길 바램. 혼자서 못 할 것 같으면 같이 답을 찾으라고 함.

14. 견습생들이 미용 시험에 대비하여 한 일과 각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연습용 머리판 만들어 같이 연습함.
- 향심이: 수건을 하나 개더라도 정확히 함. 한번 배운 기술은 몇 번이고 연습해서 익힘.
- 미정이: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머리 모양에 어울리는 화장, 장신구를 잘 찾음.
- 인덕이: 두세 시간 일찍 출근해서 서양 잡지를 보고 여인들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 그려 봄. 노란 공책에 스크랩까지 하며 자기 노력을 함.

15. 인덕이가 빨래터에서 ‘공짜 미용실’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 사내아이들은 대부분 서양식 머리를 했고, 여자들은 단발을 한 이가 하나도 없음.
- 나무판자나 바가지에 머리를 붙여서 연습하던 것과 실제로 사람 머리를 자르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낌.

16. 오엽주가 미용 시험 주제를 “숨겨진 아름다움”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남자들은 단발령 때문에 강제로 머리칼을 잘랐지만, 여성들은 자기 의지대로 머리를 잘랐으며, 이는 숨겨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여성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함.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을 찾아주는 게 미용사의 몫이라고 말함.

17. 인덕이가 미용 시험에 찾아온 여자 손님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해주며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해주는 일의 재미와 즐거움. 자신을 믿는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음. 손님이 맘에 들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18. 부르봉 호텔 출장에서 러시아 대사 부인을 다시 만났을 때, 대사 부인이 일본인 미용사 대신 오엽주를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나요?

오엽주는 자신의 취향에 딱 맞게 해줌. 똑같은 머리만 고집하는 일본인 미용사는 재미없음.

19. 러시아 대사 부인이 인덕이에게 머리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덕이가 미카의 머리를 해줄 때 인덕이의 얼굴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았음. 인덕이는 손님 누구에게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최선을 다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20. 인덕이가 일본인을 이기고 싶다고 하자 오엽주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

남과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미용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기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연마하고 날카로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21. 오엽주가 경찰서에 잡혀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신 화장품을 판다고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장사 잘되는 조선인 상점들만 골라 해코지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

22. 가수 이옥란은 오엽주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인덕이에게 머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머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용사로서 인덕이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말해 봅시다.

먼저 노란 공책을 내밀어 어울리는 스타일을 권함. 노트에는 모발의 특징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얼굴형을 꼼꼼히 적어 놓았음. 이옥란이 부르는 경성찬가와 민요에 어울리는 경쾌한 분위기를 생각함. 모발이 가느니까 조금 낮은 온도로 머리를 지짐. 이옥란이 생글생글 웃으며 좋아함. 현대적 분위기의 머리 스타일이 좋음.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거라고 칭찬받음.

23. <삼천리> 잡지 기자에게 조선인 최초로 경성에 미용실을 차린 오엽주가 강조한 말은 무엇인가요?

미용은 단지 얼굴만 곱게 다듬는 게 아니다. 사람의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미용이다. 우리 조선 여성들이 모두 건강하고 튼튼하길 바란다.

24. 이옥란은 인덕이에게 자기의 전속 미용사가 되어 같이 머리 유행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옥란의 말에서 인덕이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예술가 따위 개나 쥐버리라고 소리치는 이옥란의 당돌함은 미용사도 예술가라고 소리치는 오엽주의 당당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모두 자기가 어떤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아는 여성들의 목소리이고, 오로지 앞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성의 발걸음이라고 생각.

25. 할머니가 미용실이 불타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인덕이를 데리고 언덕배기에 올라 언 땅에 딱 붙어 사는 꽃다지, 방가지똥 등의 방석풀을 보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언 땅에서 봄이 오길 기다리는 것, 꽃이 피지 않았다고 죽은 건 아니다. 오히려 삭풍 속에서 꽃을 피우는 어리석은 식물은 없다.

26. 향심이가 인덕이의 집에 와서 전해 준 타다 남은 노란 공책은 인덕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낙심해 있는 인덕이에게 미용에 대한 열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

27. '화신미용실 헤어쇼'라는 이름으로 1935년 3월 1일에 인덕, 향심, 미정이가 모여 헤어쇼를 한 이유는 무엇 일까요?

머리칼을 자르고, 파마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화려한 화장도 해주면서 화신 미용실을 다시 알리려는 목적, 그리고 3월 1일이라는 날짜로 보아 미용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 주고, 여성으로서 직업에 대한 독립적인 의지를 보여 줌.

28. '헤어쇼'에서 파마나 단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즉석에서 나오라고 하자, 인덕이 할머니가 단발량으로 만들어 달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머니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한번 새롭게 살아 보고 싶소. 머리칼이 길든 짧은 자기 의지대로 힘차게 하는 여러분 같은 조선 여성을 보니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요. 그간 머리칼을 지키는 일이 조선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정작 조선 땅에 사는 우리 아이는 꿈을 갖지도 좇지도 못하더이다. 아이 생각은 안 하고 나라 생각만 했소. 내 머리칼을 자르는 것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백 번이라도 나설 거요. 꿈을 가지고 튼튼하게 자란 조선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조선이란 이름을 되찾아 줄지 누가 압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모습이 중요하고, 무엇이든 꿈을 갖고 사는 것이 곧 조선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9. 인덕이는 자신이 미용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대중 앞에서 헤어쇼까지 자신감 있게 하며 인생의 봄날을 꿈꿉니다. 인덕이에게 오엽주와의 만남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오엽주와의 우연한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되고, 인덕이의 단상은 훗날 인덕이가 각성하는 밑거름이 되어 준다. 현재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 우연이라는 이름의 사건은 우주의 입자들 사이의 작은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 괴로울 때, 하고 싶은 이유보다는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을 때, 누구든 조금만 톡 하고 건드려 주면 잘할 수 있다.

30. 이 소설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9~10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경성 최고 화신미용실입니다》
수업 주제: 읽은 후 활동(읽어 읽기, 삶에 적용하기)	
학번:	이름:

1. 이 소설에서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찾아보고,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말해 봅시다.

- 돈의 단위가 다름(3전, 10전: 약 한 첵 살 수 있는 가격)
- 내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본토를 일컫던 말
- 사람들이 '미용실'이라는 말을 모름
- 다식(茶食)을 시장에서 팔: 한국 전통 과자의 하나
- 인력거, 우마차, 전차, 자동차가 한데 뒤엉켜 있는 거리 모습
- '모단'이라는 일본식 영어를 씀
-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 쇼프걸: 백화점 양장점에서 일하는 여성 점원
- 숯불에 인두를 달궈 파마를 함
- 배씨 댕기를 하고 다님
- 파마 가격이 쌀 한 가마(80킬로그램) 가격임
- 단발을 하고 다니는 여성이 드물

2. 요즘은 너무 흔한 단발이 1930년대의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시 여성이라면 단발을 할 것인지 아닌지 토의해 봅시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단발이나 파마 등 서양식 머리 스타일과 화장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본 의상은 오랫동안 저고리와 치마였다. 머리 스타일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도 급격했다. 1930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여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였던 시기다. 단발, 염색, 파마, 화장법, 피부 관리 등 관심의 대상이 매우 넓어졌다.

특히 외모 중에서도 단발의 경우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표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여성들에게 있어 전통과 구습의 사슬을 끊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김활란의 경우 “단발은 여성해방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단발은 자신을 근대를 살아가는 각각한 여성으로 드러내는 징표였고 신여성을 자칭하는 여성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예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긴 머리를 과감히 자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먼저 요구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췌

1) 단발의 의미: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표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여성들에게 있어 전통과 구습의 사슬을 끊는 상징적인 행위, 근대를 살아가는 각각한 여성으로 드러내는 징표

2) 단발을 할 것이다 vs 안 할 것이다 (이유):

3.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오엽주는 실제 인물입니다. 다음은 오엽주의 사진과 오엽주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소설과 이 내용을 참고하여 미용사 오엽주의 인물됨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출처: 동아일보, 1936.



출처: 월간 에스테틱

가) 오엽주(吳葉舟)는 조선인 미용사로서 처음으로 1933년 화신(和信)백화점 2층에 미용실을 개업한 여성이다. 당시 총무로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미용실이 있었고, 조선인이 경영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 화장품 회사가 자본을 대고 미용사를 고용하는 형태였다. 이에 비해 화신미용원은 조선인 미용사가 직접 개업한 미용실이었다. 1935년 1월 화신백화점에 불이 나 영업을 못 하게 되자 미용 연수를 위해 일본에 갔다 돌아와 1935년 12월 종로 영보빌딩 4층에 엽주미용실을 개업했다. 일본 마쓰다(松田) 화장품 회사의 자본을 끌어와 파마 기계를 비롯해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머리를 전기로 지진다’는 뜻에서 ‘전발(電髮)’이라고도 불렀던 파마는 엽주미용실을 개업한 1930년대 중반부터 부쩍 인기를 끌었다. 단골손님은 영화배우 복혜숙, 김연실, 신일선 등을 비롯해 소설가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 등이었다. 엽주미용실은 VIP 고객을 위해 출장 서비스도 했다. 오엽주는 근대적 위생 관념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한 여성으로서 미용사라는 직업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패션 감각과 미용기술이 뛰어나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한국여성인물사전] 141. 오엽주(吳葉舟) <이투데이>, 2017. 6. 7. 기사 중에서

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녀가 곳곳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형수술로 자신의 몸을 바꿀 때에도, 자신의 몸을 상품화할 때에도, 다른 여성들의 몸을 아름답게 꾸며줄 때에도 그녀는 늘 당당했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의도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오엽주 씨의 미용원’, <삼천리>, 1933. 4. 기사 중에서

다) “조선 부인들을 건강하고도 어여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또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미용사도 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자처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기술로 여성들 스스로가 ‘미(美)’의 주체가 되는 법을 보여주었다.

- ‘색다른 직업여성과 그들이 본 세상’, <동아일보>, 1936. 1. 6. 기사 중에서

예시

- 근대적 위생 관념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한 여성으로서 미용사라는 직업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 패션 감각과 미용 기술이 뛰어나 새로운 유행을 창출, 창의적이고 열정적임.
- 당당하고 주체적임, 미용사를 예술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함.
- 최초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데, 도전 의식이 대단한 사람임.

4. 소설에서 오엽주는 견습생들한테 “너희는 어떤 미용사가 되고 싶니?”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견습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요.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주어진 52개의 가치 덕목을 참고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향심이: 여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 인덕이: 조선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미용사가 될 거예요.
 → 인덕이는 나중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미용사로 바뀜.

<가치 덕목: 전 세계의 공통적인 360여 가지의 미덕들 중에서 52개(1년이 52주임)>

감사	배려	유연성	창의성
결의	봉사	이상 품기	책임감
겸손	사랑	이해	청결
관용	사려	인내	초연
근면	상냥함	인정	충직
기쁨함	소신	자율	친절
기지	신뢰	절도	탁월함
끈기	신용	정돈	평온함
너그러움	열정	정의로움	한결같음
도움	예의	정직	헌신
명예	용기	존중	협동
목적의식	용서	중용	화합
믿음직함			

친구 이름	되고 싶은 것
	()는 ()이 되고 싶어요.

5. 다음 시와 이 소설을 연관 지어 감상해 보세요.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1939)



1) 그(흰 나비)에게 ㉠‘수심(水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덕이의 삶과 연관 지어 보면 ‘수심’은 무엇일까요?

- 수심: 차가운 현실, 잘 모르는 세상, 드넓은 세상,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세상
- 인덕이의 삶: 미용사로서 삶의 어려움, 미용실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 사람들의 시선 등

2) ㉠의 ‘흰 나비’와 인덕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순수한 존재(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무턱대고 미용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함. 아직 세상 물정을 모름)
- 작고 어린 존재

3) ㉠의 ‘청무우밭’은 나비와 인덕이에게 어떤 세상일까요?

꿈꾸는 세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계, 편안히 쉴 수 있는 세계

4) ㉠과 같은 일은 인덕이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화산백화점이 불에 타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을 때

5) ㉠과 같이 1930년대에 ‘서글프고 시린 흰 나비’와도 같던 인덕이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뜻한 ‘봄’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지지해 주는 할머니, 같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친구들, 스승이 되어 준 든든한 오엽주 사장,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미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고 있기에

6) 이 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인 최초로 미용실을 개업한 실제 인물 오엽주에게 SNS로 문자를 남겨 주세요.

예시 오엽주 선생님, 당신은 식민지 시대에 나비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머물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